

남원시, 사회적기업 선정 '쾌거'

자성미래환경·건강해지리산협동조합·농촌체험마을협의회·순향식품 등 4곳

남원시가 2017년 전북도 제1차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공모에서 4개 기업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페타이어를 이용한 '(유)자성미래환경',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건강해지리산 협동조합', 남원지역 체험마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사)남원시 농촌체험마을협의회', 맛있는 김치로 승부를 거는 '(영)순향식품'이 그 주인공이다.

공모에 참여한 15개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와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최종 9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그중 남원이 4개 기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이는 남원시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조사 분석하여 비즈니스모델로 유도하고 진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전략임을 인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원조사와 함께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

진 결과이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남원부각'은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 재무, 노무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멘토링 서비스 및 회계, 노무,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사회적기업가의 자질 향상과 기업경영 마인드 제고를 지속성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9곳(예비 3, 인증 6)을 육성해 총 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중 16명의 근로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인해 총 13개 사회적 기업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편, 2월에는 문화관광재단이 실시하는 2017 전북 거리극 축제 '노산놀이' 사업에 사회적기업인 '너울'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지원을 통해 신제품개발, 컨설팅, 공공구매 촉진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대상을 발굴, 육성해 기업의 자립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형철 기자

임실군, 간접흡연 으로부터 주민 보호 나선다

임실역등 10개소 금연벨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임실군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3월 군은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안내방송과 금연벨을 설치하는 등 금연 안내방송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연안내방송시스템은 자동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안내방송과 유사인이 흡연을 할 경우 금연벨을 눌러 흡연을 중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군은 임실역을 비롯한 관내 10개 공공장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금연환

경을 조성,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

금연안내방송시스템은 평소 금연구역 알림 방송이 설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 시 주변사람이 스스로 금연벨을 누르면 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금연구역 알림APP에 접속하면 금연구역 안내방송이 송출돼 흡연을 방지한다.

그동안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마찰이 적지 않았다.

비흡연자들이 말을 할 경우 사사로운 시비가 걸리기 일쑤여서 직접 말

하기조차 어려웠던 상황이 많았다.

하지만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필요한 갈등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흡연 시 나오는 안내방송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구 보건사업과장은 "금연벨 설치하는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장소 금연벨 설치를 확대·추진해 쾌적한 환경과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봄맞이 가로환경 조성 나섰다

데이지·비올라 등 심어

임실군이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봄맞이 꽃단장에 나섰다.

3월 군은 임실을 주변과 임실체제테마파크, 국민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팬지와 비올라, 데이지, 금잔화 등 5종의 약 206천여 본의 꽃을 식재했다.

이번에 심은 계절 꽃들은 주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것들로, 지역 곳곳에서 지역민의 오감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차량 및 사람 통행이 빈번한 임실을 운수교와 수정교 일원에 팬지와 비올라, 데이지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해 삭막한 철구조물을 아름다운 꽃벽으로 만들었다.

또한 단일 종이 아닌 다양한 꽃을 심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간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켰으며,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더불어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

의 보는 즐거움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오감을 즐겁게 하기 위해 다양한 꽃식재 방식을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봄꽃들이 풍성하게 단장되면 임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꽃의 고장, 예향 임실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토마토 고추장 소스 떡볶이에 흠뻑"

순창군 아시아 9개국 대학생 장류체험 실시

"이게 무슨 맛이죠?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매워서 외국인들이 먹기에도 정말 좋아요. 순창군에서 만든 토마토고추장소스 떡볶이에 흠뻑 빠졌어요. 거기에 참살로 만든 인절미에 튀밥까지... 한국에서 색다른 경험이었습시다."

지난달 31일 순창군 장류체험관을 찾은 2017 KT&G 아시아청년 창업포럼 참여자 아시아 9개국 대학생 150여명이 장류체험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다.

전북도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2017 KT&G 아시아청년 창업포럼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 일원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고추장의 대표고장인 순창을 방문해 순창고추장마을 방문, 발효소스도굴 견학, 장류체험의 일정을 가졌다.

이들은 발효소스도굴을 견학해서는 순창고추장의 역사와 소스산

업의 비전, 순창장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고추장의 저장시설에 감탄하면서 장류를 소재로 한 스토리조형물과 트리아이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장류체험관에서는 토마토고추장소스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서 시식하고, 고추장만들기를 하면서 직접 맛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참살 꼬두밥을 떡메로 치면서 떡이 되는 과정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떡과 쌀을 넣어 만든 전통튀밥도 이색적이어서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지역의 학생들이 고추장을 체험하면서 숙박까지 하는 힐링체험여행으로 장류체험관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장류체험관과 고추장민속마을, 발효소스도굴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으로 관광산업 1번지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스마트 회의 '눈길'

순창군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일 간부회의시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은 그동안 회의 시 გადა 생산되는 인쇄물로 인한 자원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회의 전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만들어 졌다.

노트북 35대와 와이파이가 등 추가기기 설치를 완료해 실시간 발표와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 간부회의를 비롯해 각종 업무보고, 세미나 등에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인쇄물을 이용한 일회성 회의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정부 실현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앞서가는 행정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4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등 무기류 일체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로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임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불법 광고물 근절 행정력 집중

임실군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35사단 이전, 일진제강 등 유망기업 유치로 임실을 소재지가 활기를 띠며 따라 일부 생활광고형 불법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원 6명으로 구성된 2개조를 투입하고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관리로 매년 3천여점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군은 부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사전

에 예방하고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현수막이 자주 교체되는 군청과 등기소 일원에 접이식 6단 게첨대 2대소를 설치,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불어 잘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물에 게시하는 올바른 문화의식이 필요하다"며 "불법광고물 제거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은 현수막 게첨대 38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천5백여건이 신고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선관위 우체국, 업무 협약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현준)는 3일 순창우체국 3층 회의실에서 순창우체국과 상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조기관 사무과장과 순창우체국 조장희 국장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교환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아름다운 선거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거우편물 조기 발송 및 지역별 구분 발송, 우체국 우편 및 금융사업 협조, 선거 인력지원 및 선거우편물 신속 접수·배달, 선거시설물 오·훼손사항 점검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이다.

/순창=이왕원 기자